

전기전자제품, 닫힌 고리형 재활용체계로 구축...환경부·업계 협약

- 텔레비전, 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의 닫힌 고리형 재활용체계(Closed Loop) 구축을 위해 삼성, 엘지 등 가전업계와 물질재활용업계 협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전업계 및 재활용사업자와 함께 5월 3일 수도권 자원순환센터(경기 용인 소재)에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엘지전자 사장,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 재활용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업계가 전자제품의 원료로 적합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자는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가전 분야에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재활용업계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공급한 폐전기·전자제품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자원이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는 닫힌 고리형 재활용체계(Closed Loop)인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유통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연간 폐전기·전자제품 약 40만톤을 재활용하면 플라스틱이 약 12만톤 발생한다. 기존에는 이 중 일부만 가전업계에 재생원료(2.8만톤/년)로 공급됐고, 나머지는 저품질 재생원료와 혼용되어 판매되거나 수출됐다.

하지만 이 협약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원료 연간 약 8만톤*(5만 2,000톤/년 추가 확보)이 가전업계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냉장고(26kg/대) 약 3백만대 생산가능한 물량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했고, 앞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관련 업계에서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 기반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 협약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재생원료를 가전기업에 공급하는 우수한 순환경제 산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 개요.
2.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서.
3.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 **(목적)** 전자제품 원료로 적합한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재생원료 사용량 확대 및 재활용 기술 고도화** 촉진
 - * (전자제품社) ESG 경영·고품질 원료 확보, (재활용業) 고부가가치·안정적 수요처

- **(時·所)** '23.5.3(수) 10:00~11:00 수도권자원순환센터(경기 용인)

- **(참석)** 환경부장관,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생산자(삼성, LG), 재활용사업자(동북권자원순환센터, 이에스알씨)

- **(협약효과)** 전기·전자제품 유래 고품질* 재생원료(플라스틱)를 공급 확대 (현재 28,616톤/년(5개 RC) ⇨ 최대 약 8만톤**/년(12개 RC))
 - * (품질확보) 유해·제한물질 미사용 원료, 품질등급이 높은 소재, 전자제품 제조에 적합물성
 - ** (원료수급) 기존 저품질 재생원료와 혼용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던 재생원료 5만여톤을 국내 전자제품에 추가로 사용하면 냉장고 약 3백만대 생산 가능(26kg/대)

생산자-재활용사업자-이순환거버넌스-환경부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

환경부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재활용사업자, 이순환거버넌스(이하 '협약 당사자'라 한다)는 폐전기·전자제품에서 분리한 자원을 원료로서 다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 발생 저감에 이바지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협약당사자는 폐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선별된 재생 자원이 다시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닫힌고리형 자원순환 체계(Closed Loop Recycle)를 완성하기 위해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으로 함께 노력한다.

제2조(기관별 역할) 협약 당사자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1.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 원료 사용량 확대 및 그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2. 재활용사업자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 등이 공급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극대화 및 재생된 자원이 원료로써 전기·전자제품 생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이순환거버넌스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생 원료 사용에 따른 재활용 의무량 감경을 지원한다.

4.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원한다.

제3조(협의 조정 등) ①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 조정하여 처리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협약 이행, 교류,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부 시책, 경영 정보, 기술 및 영업 비밀을 본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보관) 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하여 각각 1부 보관한다.

2023. 5. 3.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장 박승희 (서명)

엘지전자 주식회사

사장 류재철 (서명)

(주)동북권자원순환센터[※]

대표이사 김명대 (서명)

(주)이에스알씨[※]

대표이사 채정곤 (서명)

이순환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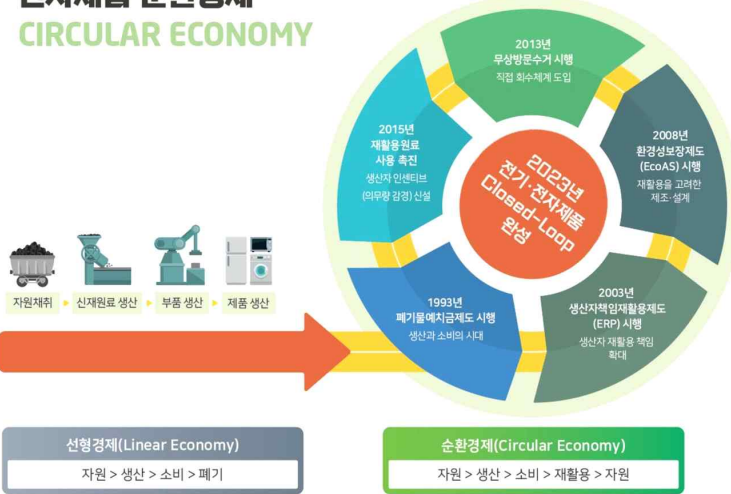
이사장 정덕기 (서명)

환경부

장관 한화진 (서명)

■ 전자제품 순환경제 연혁

전자제품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선형경제(Linear Economy)
자원 > 생산 > 소비 > 폐기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자원 > 생산 > 소비 > 재활용 > 자원

- (1993년) 폐기물예치금 제도 시행
▶ 생산과 소비의 시대
-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 생산자 책임 확대
- (2008년) 환경성보장제 시행
▶ 재활용을 고려한 제조설계
- (2013년) 무상방문수거 시행
▶ 직접 회수체계 도입
- (2015년) 생산자 인센티브 신설
▶ 재활용 원료 사용 촉진
- (2023년) 전기·전자제품 Closed-Loop 완성

■ 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개요 및 기대효과



순환자원 확보
(합성수지)

